

보도자료

2011년 7월 20일(수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 과장(☎750-2530)
통신경쟁정책과 이광용 사무관(☎750-2533) kylee@kcc.go.kr

방통위,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제정

- 다량구매할인을 최대 6% 산정 및 데이터만 제공받는 사업자 50% 추가할인 등 -

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7월 20일(수) 『도매제공 가이드라인』 (이하 '가이드라인')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. 이를 통해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 제도마련을 위해 추진한 법령 개정, 고시 제정 등의 여러 조치에 이어, MVNO 경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완성되었다.

◎ MVNO 제도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방통위 추진사항

1. MVNO 제도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
 - 전기통신사업법 개정·시행('10. 9. 23.)
 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·시행('10. 10. 1.)
2. 「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·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(방통위 고시 2010-42호)」 제정('10.11.15.)
3.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수리('11. 3. 9.)
4. MVNO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('11. 5. 16.)

가이드라인은 ① 다량구매할인율, ②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, ③ 재제공, ④ 자가소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

① 다량구매할인율은 MVNO 시장진입, 의무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, 이동통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자 20만명 이상시 1% ~ 가입자 120만명 이상시 6%로 할인기준을 마련하였다. 이에 따라,

'11년 새롭게 산정된 기준할인율(31% ~ 47%)을 고려할 때, MVNO는 최대 53%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※ 도매제공 고시에 따라 기준할인율은 의무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

② 데이터만 도매로 제공받는 MVNO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%를 추가할인토록 하였다. 이에 따라, 사물통신(Machine to Machine) 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의 시장진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③ 자가소비에 대해서는 MVNO 전체 가입자중 자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의 사용비율이 2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MVNO 도입 편익이 일반국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. 한편, MVNO 사업초기 1년간은 자가소비 예외를 인정하여 MVNO 초기 가입자 확보가 원활하도록 하였다.

④ 재제공에 대해서는 재제공 받고자 하는 사업자도 별정4호 MVNO로 등록하도록 하여, 재제공 사업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. 또한 재제공 사업자의 파산 등에 대해 MVNO와 재제공 사업자 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연대책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재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.

<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>

구분	내용
다량구매할인율	가입자 20만명 이상 1% ~ 가입자 120만명 이상 6% 추가할인
데이터 전용 MVNO 도매대가	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% 추가 할인
자가소비	자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의 20% 초과 금지(1년간은 적용유예)
재제공	MVNO로 등록한 사업자에게만 재제공 가능, 재제공 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 부과

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MVNO 경쟁여건이 개선되어, MVNO 시장진입이 보다 가속화 되어,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. 방통위는 앞으로도 경쟁을 통해 국민의 통신편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MVNO 시장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끝.

□ 참고 : MVNO 등록현황

구분	대표자	등록일	주요주주	사업 분야
한국케이블 텔레콤	장윤식	'10. 10.	태광산업(91%) HCN(4%) CJ헬로비전(1%)	인터넷전화 국제전화 망 임대
온세텔레콤	최호	'10. 11.	세종텔레콤(19.86%) 사모펀드(19.48%)	국제전화 시외전화
S로밍	김도성	'10. 11.	케이티하이텔솔루션(50%) 엘티에스(50%)	해외로밍 휴대폰렌탈
몬티스타 텔레콤	김태암	'10. 11.	김태암(45%) 디코릭스(30%) 곽창욱(15%)	인터넷전화 국제전화 별정2호(LGU+)
에넥스 텔레콤	문성광	'11. 1.	문성광(40%) 유재경(23%)	별정2호(KT)
인스프리트	이창석	'11. 1.	이창석(11%)	모바일 솔루션 개발업체
한국 정보통신	김철호	'11. 3.	박헌서(26%) 외국인투자자(55%)	인터넷결제 신용카드조회
케이디씨 정보통신	김상진	'11. 3.	케이디씨네트웍스(9%) LBA 경제연구소(1%)	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통합
(주)에버그린 모바일	김도균	'11. 5.	(주)그레코스(81.3%)	별정2호(KT)
(주)아이즈 비전	이통형	'11. 5.	이통형(15%) 임채병(9.2%)	국제전화선불 재과금
(주)케이디 링크	안태운	'11. 6.	(주)브리스테크(99%)	이동통신판매 통신설비
(주)씨엔 커뮤니케이션	이용우	'11. 6.	(주)씨엔엠브이엔오(40%) (주)라이프디비(14.7%)	별정2호(LGU+)
대성홀딩스	김영훈	'11. 7	김영훈(39.9%) 김영주(19.39%) 대성인베스트먼트(16.78%) 김정주(9.68%)	도시가스 별정2호(스카이프)

※ 자회사 진입을 제한하기로 한 위원회 권고에 따라 SK텔링크, 케이티스는 표시하지 않음